

## 캐나다 Lakehead University 체험수기

영어영문학과 서경윤

안녕하세요. 저는 Lakehead University에서 충남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한 학기 이수한 영어영문학과 서경윤입니다. 막연히 영어 실력을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에 도전한 교환학생이었지만, 캐나다에서 생활하며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이 많아 체험 수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레이크헤드 대학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궁금하신 학우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랍니다.

-레이크헤드 대학교가 위치한 쉰더베이는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중소도시입니다. 쉰더베이로 바로 가는 직항은 거의 없고, 대개 토론토를 경유하여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국할 때 유나이티드 항공을 통해 인천-샌프란시스코-토론토-쉰더베이 순으로 갔는데,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ESTA 비자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입국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입국심사 줄이 매우 길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항공사의 조건에 따라 위탁수하물을 공항마다 찾아서 다시 부쳐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미국을 경유해 가는 비행기표면 미국에서의 대기시간이 무조건 3시간 이상 인걸로 예상하시는걸 추천합니다.

-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종종 학생비자를 발급해야 될지, eTA를 발급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6개월 미만으로 머무르기에 굳이 학생비자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신청하기 쉬운 eTA를 통해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eTA 공식 사이트에서 하라는 대로 기재요소를 기입하고, 7CAD를 지불하면 쉽게 비자 신청이 끝납니다. 하지만 eTA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 SIN 발급이 불가능해 캐나다 계좌를 만들 수 없었으며, 그러기에 학교 내에서의 아르바이트를 못한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캐나다 계좌를 만들 수 없기에 금액 지불은 거의 하나 비바 플러스 카드(비자)를 통하여 지불했습니다. 미술관 혹은 박물관의 입장료 할인을 받기 위해 ISIC 국제학생증 겸용인 하나 비바 G 체크카드 (마스터)도 만들어갔지만, 마스터보단 비자 카드만을 받는 곳이 많고 국제학생증이 아닌 레이크헤드 학생증을 보여줘도 할인이 가능했기에 비바 G 체크카드는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왕이면 비자와 마스터 카드 둘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불 방법으로 현금만을 받는 곳들도 있고, 친구들과 놀고 금액을 더치페이할 때는 미리 ATM기에서 뽑아간 현금을 이용했습니다. ATM기는 아고라, 교내 카페인 STUDY, AT 건물, Bartley 건물 등 다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쉽게 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출금 수수료가 3달러나 하기에 저는 한번 뽑을 때 100달러씩 뽑아서 필요할 때 마다 썼습니다.

-기숙사는 주택 형태인 Townhouse, 아파트 형식인 Apartment가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먼트 모두 거주인이 4명이고, 주방이 한 개 있으며, 각자 방이 하나씩 주어진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타운하우스의 화장실은 한 개이고 아파트먼트의 화장실은 두 개이며, 타운하우스는 개별

방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아파트먼트는 그러지 못한다는 등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숙사 형태는 기숙사 신청 기간에 선호 주거 방식을 선택하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신청 시 잠을 일찍 자는 편인지 늦게 자는 편인지,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지,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지 등의 설문조사를 하기에 비슷한 성향의 룸메이트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용 수강신청 안내 메일은 전체 게시판의 수강신청 알림보다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충남대와 달리 레이크헤드에서는 교환학생이라도 수강 신청 인원이 다 찼으면 대기인원에 이름을 올려야 되기에 전체 게시판에 수강신청 공고가 뜨면 곧바로 수강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더베이에 도착했을 때 미리 학교의 무료 공항 픽업 신청을 하면 마중 나온 레이크헤드 학생들과 만나 학교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숙사 관련 업무들을 담당하는 Bartley에 내려 주기 때문에 입주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Bartley는 기숙사 열쇠를 놓고 나와서 문이 잠겼을 때, 쓰레기 봉투가 필요할 때나 기숙사 내에 수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타 기숙사 관련된 궁금증이 있을 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선더베이에서 버스는 한 번 탈 때 3.5달러입니다. 매번 해당 금액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4달러를 내도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기에 레이크헤드에서 1년동안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U-Ride 패스를 사는 것이 편합니다. 제가 샀을 때 기준으로 198.95 캐나다 달러였습니다. 생수나 쌀을 샀을 때는 우버와 유사한 U-Ride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개강 전에 진행되는 International Orientation이나 캠퍼스 투어 등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가을 학기 기준으로 International Orientation 이후에 있는 활동들은 교환학생들만 아니라 캐나다 신입생들도 참여하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도 교환학생 멘토링 활동이나 학교 캠퍼스 내의 행사들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관한 정보는 학교 이메일로 오는 뉴스레터나 학교 내의 공고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Midterm이 두 번, Final이 한 번 있었습니다. 파이널은 중간고사 이후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닌 학기 초부터 배운 전단위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미드텀은 교수님이 공고해주시는 교실에서 보는 반면에 파이널은 다른 수업의 학생들도 모두 다 체육관인 Hangar에 모여 3시간 동안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때 교수님께서 몇 시간이 남았다고 말씀해주시긴 하지만, 집중이 끊기는 걸 싫어하신다면 미리 손목시계를 챙겨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어영문학과 수업들은 파이널이 없는 대신 파이널 에세이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이널 에세이를 쓰는 것 외에도 거의 매주 에세이를 썼습니다. MLA 방식으로 에세이를 쓰는 것을 강조하니 영어영문학과 수업을 들으신다면 미리 어떻게 쓰는지 알아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숙사 식당이 있긴 하지만, 저는 기숙사 식당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밀플랜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요리를 해서 끼니를 해결했고, 종종 친구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외

식을 하면 팁 포함 20후반에서 30초반 달러까지 냈습니다. 장은 월마트 혹은 슈퍼스토어에서 봤으며, 매주 30~50 달러 사이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월마트와 슈퍼스토어에도 불닭볶음면, 신라면, 고추장, 간장 등 한국 음식 관련 품목들이 존재하였고, 아시안 마켓인 Golden Flower에도 김치와 비비고 만두 등을 팔았습니다.

-유심은 한국에서 미리 스마텔 유심을 준비해 가서 이용했습니다. 인터시티 쇼핑몰에 다양한 통신사 판매점이 있기에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이용해도 되긴 하지만, 한국에서 준비해 가는 것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저는 종강 후에 여행을 하는 것을 고려해 매달 5GB 플랜을 이용하였는데, 학기 중에는 학교와 기숙사 내에 와이파이가 존재하기에 3GB도 채 넘기지 못하는 달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캐나다 유심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온다면 3GB 플랜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수업 교재는 페이스북의 Lakehead University Used Textbooks 페이지를 통하여 중고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를 미리 사더라도 막상 수업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수님이 교재를 사라고 강조하시면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영문학과 수업들은 거의 다 수강계획서에서 사라고 하는 교재들을 다 수업에서 이용하였습니다.